

3) 순천농업학교

축구부는 1938년 5년제 학제개편에 따라 정읍농업학교에서 김병은, 최기춘, 신봉현 그리고 광주농업학교에서 김용규 선수 등이 편입, 보강되었다. 그러나 세밀한 기술을 지도할 선생이 없어 오직 개인기에 의존하여 훈련을 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순천 1931팀의 정갑래를 초빙하여 기술지도 훈련을 담당케 했다. 그리하여 1939년에 광주서중을 물리치고 전남대표로 조선신궁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본선 진출권을 따낸 후 고도의 기술지도 훈련을 위해 박형렬의 지도를 받았다. 비록 전국 3위에 그치긴 하였지만, 당시 관중들의 흥분과 열기는 대단하였다.

당시 출전한 주전선수는 김형규·김병은·최기춘·이석순·김동근·신봉현·서홍석·김영신·정복래·김용규·윤성봉 등이었으며, 후보선수들은 고진수·허용·김동호·고봉석·박장순·고여주 등이다.

당시 일본씨름은 일본의 국기로서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자연히 한국에서도 각 학교에 보급되었다. 일본씨름의 사범으로 후지다(藤田)가 지도, 육성하였다. 창단 초기의 나종찬·정광식·백옥인·김동환 등은 체격조건이 좋은 유망주들이었으며, 특히 1938년 이후의 심인채·신재우·정삼학·김장술·이준수와 같은 우수한 선수가 배출되었다. 1938·1939년 전국대회에서 전남대표로 일본대회에 출전하였다. 당시의 선수는 나종찬·백옥인·김동환·송규삼·심인채·신재우·정삼학·김장술·이준수·황호진·박상열·김종두·나종선·테지마(手島文男)·배순동·오재휘 등이다.

차준철의 지도로 창설된 육상부는 1938년부터 전남대표로 조선신궁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 특히, 김철환 선수는 100m 에서 10초 9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여 당당히 한국대표로 일본선수권대회에 출전하였다. 당시 육상선수는 단거리 종목에 김철환·이방호·김태수·김장곤·고봉석·정형천, 중거리 종목에 김수현·최민규, 장거리 종목에 최영남, 투척 종목에 정광식, 도약 종목에 최봉규 등이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시국이 급박해진 일제가 체육을 전쟁 목적에 결부시켜 완전 통제함으로써 스포츠계는 침체기를 맞았다. 당시 순천에서는 구기나 개인경기는 중지되었고, 육상경기는 국방경기화되고 총검술·사격·마술·통신훈련 등 전력 증강의 일변도로 변하였다. 그래서 1942년부터 마장마술·마경대회·사격 및 총검술대회에서 전남 우승을 차지하였고, 육상선수로 구성된 무장경기대회에서 씨름선수와 합세하여 출전, 매년 우승하였다.

해방 이후 1947~1949년 사이는 순농 축구의 전성기로 영·호남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는 초등부·소년부·중등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947년에 열린 전남중등학교 축구대회에서는 중등부·소년부의 경기가 열렸는데 중등부에서 우승하였다. 당시의 선수는 중등부에 서병열·정상옥·안호선·한정수·황요연·김남곤·이영환·조상호·이창권·윤용원·곽규섭, 소년부에 박창권·김진호·유태수·박무길·이근태·지원중·서연노·곽관섭·전대성·박만호·윤오영·이부용 등이다.

그리고 이형운이 지도하는 기계제조부 활동도 대단하여 고흥·여수 방면을 비롯한 순회공연에서 그 묘기를 자랑하였다. 공연의 목적은 학교 선전이었으며, 선수는 김경수·김창곤·윤용현·김동석·이용준·김중진 등이다.

